

#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 동맹 분열”

### 미국 매체 ‘제한적 성공’ 평가 영·일 동참, 프랑스·한국 불참 “한국, 北문제 中과 조율 이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꺼내든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카드’를 놓고 미국의 동맹이 분열되면서 ‘제한적 성공’에 그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정치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동맹국들이 뒤따라갈 원했지만 모든 동맹이 동참하지는 않고 있는 데 따른 분석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6일(현지시간) “바이든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놓고 동맹이 분열되고 있다”며 “외교 보이콧은 이미 제한적인 성공이 될 것이라는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교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되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꾸러진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6일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미국 동맹들이 외교적 보이콧에 합류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면서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리투아니아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확산 기류가 일었다.

하지만 더힐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노력이 미국 양당과 인권단체, 주요 동맹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는 보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키우스(AUKUS)를 놓고 미국과 각을 세웠던 프랑스와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국 이탈리아가 사절단을 보내기로 하는 등 미국의 핵심 유럽 동맹들이 이탈했고, 독일은 유럽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강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도 코로나19 상황을 주시 하겠다면서도 외교 사절단 파견 입장을 밝혔다.

더힐은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서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등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아직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더힐은 한국에 대해 “미국과 점예한 불화 속에 있는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조율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

른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들 스스로 결정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처럼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의 엇갈린 입장은 중국에 이익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매리 겔러거 미시간대 국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동맹이나 다른 서방 민주국가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중국에 명확하게 해주기 쉽다”며 “누가 미국 편이 아니고 어디에 의견충돌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멘설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 동맹의 단조함이 덜한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주도 아마다바드에서 티베트 지역청년회의(RTYC) 회원들이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남부 카르나타카주 주도인 벵갈루루에서 출발해 수도 뉴델리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두 달째 폭우에 물바다로 변한 브라질 북부 도시 26일(현지시간) 브라질 바이아주 도시 이타투나의 카소에이라 강이 최근 내린 폭우로 범람하면서 인근 지역이 물바다로 변해 있다.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 폭우가 거의 두 달째 이어지면서 댐 2곳이 일부 붕괴하고 이재민 수천 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 올해 최악의 기후재난은 허리케인 ‘아이다’

### 英 단체 분석...피해액 77조원

### 상위 10건 피해액 202조원 추정

올해 일어난 기후재난 피해액이 상위 10건만 합쳐도 총 1703억 달러(약 20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는 ‘기후 붕괴의 해 2021년: 비용 계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최악의 기후 재난으로는 650억 달러(약 77조원) 피해액을 남긴 허리케인 아이다가 꼽혔다. 지난 8월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는 미국 루이지애나 등 지역에 집중호우와 강풍을 뿌려 총 95명의 사망자를 냈다. 최대 풍속은 시속 240km에 달했다. 7월 12~18일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

에, 룩셈부르크 등을 휩쓴 ‘유럽 홍수’ 재난의 피해액이 430억 달러(약 51조원)로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만 240명에 이르렀다. 정확한 이재민 수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정도였다. 3번째로 피해액이 큰 기후 재난은 2월 2~20일에 발생, 사망자 210명을 낸 미국 ‘텍사스 겨울 폭풍’으로, 피해액은 230억 달러(약 27조원)로 추산됐다.

중국 허난(河南)에서 7월17~31일에 발생한 홍수도 피해액이 176억 달러(약 21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2명에 이르렀고, 이재민 수는 무려 100만 명을 넘었다고 크리스천에이드는 밝혔다.

그밖에 11월 중순 캐나다 홍수(추산 피해액 75억 달러·약 9조원), 초봄인 4월에 불어닥친 프랑스 한파(56억 달러·약 6조6000억원), 등이 큰 피해를 냈다고 크리스천에이드는 밝혔다. /연합뉴스

## 오미크론 출현 한달...코로나 확진 34% 급증

### 전 세계 하루 98만명까지

### 같은 기간 사망자는 18.8% 줄어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등장한 이후 한 달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감염성이 높은 대신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처럼 감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중환자 수에 큰 차이가 없게 되거나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루 동안 전세계에서 58만5316명이 새롭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를 전인 23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인 98만 2822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최근 7일간의 세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525만5743명이다. 하루 평균 75만821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이고, 직전 한 주(455만31명)보다는 16%가 늘어난 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진이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를 처음 국제사회에 보고한 지난달 24일 이전 한 주(11월 17~23일)간의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55만8천38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만에 신규 감염 건수가 34.5% 늘어난 셈이다.

실제, 세계 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UPI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선 지난 20일 하루 동안에만 29만1671명이 새로 감염됐다. 이는 올해 1월 8일(29만4015명)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지난 24일에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각각 12만2186명과 5만599명이 감염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프랑스도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4611명으로 치솟아 처음으로 10만명 선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 칠레 35세 대통령 당선 뒤에 K팝 팬 있다?

### 소셜미디어 통해 당선운동 굿즈 제작해 오프라인 활동도

최근 소셜미디어엔 가브리엘 보리치(35) 칠레 대통령 당선인이 K팝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포토카드를 든 사진이 올라왔다. 한국식 ‘손가락 하트’까지 한 보리치 당선인의 모습을 보고 칠레 안팎의 K팝 팬들이 열띤 반응을 보였다.

1986년생 밀레니얼 세대로, 칠레 역대 최연소 대통령 취임을 앞둔 보리치는 이번 대선에서 주로 젊은 층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특히 30대 미만 여성 유권자 그룹에선 보리치가 전국 16개 지역 중 15개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칠레 일간 라테레세라는 전했다.

젊은 층 내에서도 특히 보리치에 조직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 K팝 팬들이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K팝 팬들은 K팝 스타들과 보리치를 합성한 이미지 등을 다수 생산하며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 보리치가 극우 후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에 밀려 2위를 기록한 후에는 ‘보리치를 지지하는 K팝 팬들’이라는 트위터 계정도 생겼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이들은 K팝과 보리치를 엮은 16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보리치 당선운동을 폈다. 온라인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지난 16일 산티아고의 카페에서 보리치 캐릭터를 새긴 컵 홀더 ‘굿즈’를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다. 보리치도 K팝 팬들의 응원에 화답했다. 그는 이날 초 K팝 팬들로부터 받은 케이크 등 선물을 개봉하는 틱톡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을 비롯한 일부 영상이 블랙핑크 등의 노래를 깔기도 했다. /연합뉴스

### 투투 대주교 내달 1일 장례미사 남아공 곳곳 보라색 추모 물결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섰던 테즈먼드 투투 명에 대주교의 장례미사가 내달 1일로 예정됐다고 AFP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反) 아파르트헤이트 투쟁으로 1984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투투 대주교는 이날 90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투투 대주교 재단은 일주일 간 애도 기간을 보낸 뒤 다음 달 1일 케이프타운에 있는 세인트조지 대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열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이 성당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주교였던 고인이 한때 봉직하던 곳이다. 유해는 세인트조지 대성당에 이틀간 안치된다.

조르딘 힐 루이스 케이프타운 시장은 26일 오후 8시부터 시청 건물, 지역 명소인 테이블 마운틴 등을 보라색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라색은 투투 대주교가 입던 사제복 색깔이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장례미사 전날 밤까지 남아공 전역과 재외공관에서 조기가 게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